



# S&P, 유로존 9개국 신용등급 강등

정인영 연구원

- 1월 13일(이하 현지시각) 신용평가기관 S&P가 프랑스를 비롯한 유로존 17개국 중 9개국의 신용등급을 1~2단계 강등하고, 14개국에 대해서는 부정적 등급 전망을 내놓음.
  - 이탈리아, 스페인, 포르투갈, 키프러스는 두 단계 하향 조정하고, 프랑스, 오스트리아, 몰타, 슬로바키아, 슬로베니아는 한 단계 하향 조정함.
  - 신용등급 전망은 독일과 슬로바키아 2개국만 안정적으로 부여하고 그리스를 제외한 나머지 14개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추가적인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될 전망이다.
- S&P는 이번 강등의 이유를 재정위기에 대한 유로존의 정책적 대응이 시스템적 스트레스(systemic stress)를 해결하는데 불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밝힘.
  - 유로존 신용경색 심화, 유로존 국채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, 정부와 가계의 동시다발적 디레버리징, 경제성장 전망 악화, 유럽 정치권 의견차로 인한 해결방안 도출 지연 등을 원인으로 지적함.
  - 일각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유로존의 재정위기 극복 노력을 평가하지 않고 신용등급을 강등하여 오히려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상황을 부정적으로 만들었다는 비난이 제기됨.

〈표 1〉 유로존 신용등급 조정 현황

국가명	등급 조정 폭	조정 내용	신용등급 전망
이탈리아	2단계 하향	A → BBB+	부정적 관찰 대상 → 부정적
스페인	2단계 하향	AA- → A	부정적 관찰 대상 → 부정적
포르투갈	2단계 하향	BBB- → BB	부정적 관찰 대상 → 부정적
키프러스	2단계 하향	BBB → BB+	부정적 관찰 대상 → 부정적
프랑스	1단계 하향	AAA → AA+	부정적 관찰 대상 → 부정적
오스트리아	1단계 하향	AAA → AA+	부정적 관찰 대상 → 부정적
몰타	1단계 하향	A → A-	부정적 관찰 대상 → 부정적
슬로바키아	1단계 하향	A+ → A	부정적 관찰 대상 → 안정적
슬로베니아	1단계 하향	AA- → A+	부정적 관찰 대상 → 부정적

자료: S&P.

■ 한편 이번 프랑스를 비롯한 유로존 신용등급 강등은 이미 예견된 이슈가 가시화되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.

- 유로존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전해진 유럽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면, 주가 및 신용지표, 국채수익률 등의 부정적인 움직임이 제한적임.

■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유럽 국가들의 위기대응능력을 약화시키고, 국채금리 상승 및 신용경색 악화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함.

- EFSF 보증의 약 20.4%를 담당하는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 S&P는 1월 16일 EFSF의 신용등급도 ‘AAA’에서 ‘AA+’로 한 단계 끌어내림.
- 이는 EFSF 조달금리 상승 및 가용자금 축소로 연결돼 유럽 국가들의 위기대응능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높임.
- Van Rompuy EU이사회 상임의장은 유럽 위기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ESM의 역할 강화 및 IMF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함.
- 한편 이탈리아, 스페인, 포르투갈 등 재정위기 국가들의 신용등급 강등은 이들 국가들의 국채발행 조건을 악화시켜 채무상환능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.
- 이달 말 EU 정상회담에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이 어떻게 도출되는지와 올해 상반기 이탈리아를 비롯한 재정위기 국가들의 대규모 채무 상황이 원활히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시장흐름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.

(FT, WSJ 등, 1/13~1/16)